

KIA 이명기, NC 유니폼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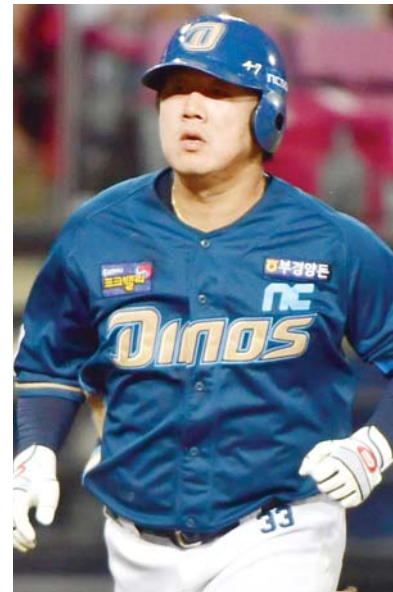
NC 이우성과 맞트레이드 “나성범 공백 메울 것”
KIA “잠재력·미래 가치 높은 중장거리형 타자”

KIA 타이거즈에서 뛰던 외야수 이명기(32)가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는다.
NC는 KIA에 외야수 이우성(25)을 내주고 이명기를 받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NC는 “이번 트레이드는 외야수 보강을 위해 우리가 KIA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며 “이명기는 경험이 많고 콘택트와 주루가 좋은 왼손 타자다. 공·수에서 시즌 중부상으로 빠진 나성범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8라운드 전체 63순위로 SK 와이번스에 입단한 이명기는 2008년 1군 무대에 데뷔했으며 2017년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다.
이명기는 프로에서 뛰는 10시즌 동안 통산 67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4 23홈런 224타점 74도루 399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올 시즌에는 80경기에 나서 타율 0.283 1홈런 21타점 4도루 37득점을 기록했다.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이우성은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NC로 이적했고, 1년 여 만에 또다시 팀을 옮기게 됐다.
2014~2015년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우성은 2016년 1군 무대에 데뷔했으며 통산 10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5 7홈런 36타점 36득점의 성적을 남겼다.



올 시즌에는 28경기에 나서 타율 0.283 3홈런 12타점 12득점을 기록했다.
KIA는 “이우성은 병역 문제를 해결한 젊은 외야수 자원이자. 잠재력과 미



래 가치가 높은 중장거리형 타자로, 팀 타선에 힘이 될 것”이라고 트레이드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시

정영식, 마룽에 막혀 코리아오픈탁구 결승 무산

한국, 은 2개 · 동 3개

신한금융 2019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 나선 정영식(미래에셋대우)이 마룽(중국)에 막혀 도전을 멈췄다.
세계랭킹 20위 정영식은 7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4강전에서 랭킹 5위 마룽에 세트스코어 1-4(7-11 11-5 7-11 6-11 9-11)로 패했다.
전날 세계랭킹 3위 판젠둥(중국)을 쓰러뜨리는 파란을 일으킨 정영식은 마룽에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정영식은 1세트를 7-11로 패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전열을 정비한 정영식은 2세트를 11-5로 잡고 세트스코어 1-1을 만들었다.
그러나 더 이상 반전은 없었다. 마룽은 한수 위의 기량을 자랑하며 정영식을 몰아쳤다. 정영식이 끈질기게 붙고 늘어졌지만 역부족이었



다.
정영식은 세트스코어 1-3으로 뒤진 5세트에서 9-10까지 추격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마룽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이 대회 우승 기회를 잡았다.
한국 선수단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대회를 마쳤다. 남자복식 이상수(삼성생명)-정영식 조와 여자복식 양하은(포스코에너지)-최효주(삼성생명) 조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단식 정영식, 남자복식 장우진(미래에셋대우)-임종훈(KGC인삼공사) 조, 여자복식 전지희(포스코에너지)-이시은(삼성생명) 조가 동메달을 수확했다.

류현진, “BTS보다 더 인기있어?” 질문에 고개 ‘절레절레’

美 지역 매체 기자 “한국에서는 대형 사건”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32·LA 다저스)을 향해 농담섞인 질문이 주어졌다.
바로 “올스타전 선발 등판 뒤에 방탄소년단(BTS)보다 인기가 많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매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빌 플링킷 기사는 6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류현진과 주고받은 대화 한 토막을 공개했다.
플링킷 기자에 따르면 류현진은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는 대형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플링킷 기자는 “올스타전 선발 등판 뒤에 BTS보다 더 인기가 많

아진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류현진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플링킷 기사는 “류현진은 내가 그 말을 꺼낸 것조차 미친 일이라는 듯 나를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선발 등판은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류현진에 앞서 박찬호(2001), 김병현(2002), 추신수(2018) 등 세 명의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올스타전에 출전했지만 선발 등판하는 것은 류현진이 최초다.

통상적으로 올스타전이 열리기 하루 전 선발 투수를 발표하지만,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올스타전을 9일이나 앞둔 지난 1일 류현진을 내셔널리그 올스타 선발 투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뉴스시

전남드래곤즈, 브라질 공격수 브루노 바이오 영입 공격력 강화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창명)가 공격력 강화를 위해 브라질 Votuporanguense에서 뛰고 있는 브루노 바이오(Bruno Henrique Baio da Cunha)를 영입했다.
브루노 바이오는 브라질 명문 Internacional(전체1부) 유스에서 성장하여 19세의 나이로 1부리그 데뷔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이다.
197cm의 장신 선수로 공중볼 경합과 헤딩 슈팅 능력 우수하며, 장신임에도 볼 터치 및 소유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스피드 플레이와 이동 트리핑 후 슈팅 능력 탁월한 선수이다. 2018년 20경기 출장 10골 3도움, 2019년에는 12경기에 출장하여 2골 2도움을



기록중이다.
브루노 바이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는데 아름답고 좋은 것 같다. K리그에서 뛰게 되어 설레고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뛰어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돕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주FC, 18경기 무패...K리그2 최다 타이 기록

12승6무...2017년 경남FC와 어깨 나란히

광주FC가 K리그2(2부리그) 무패 기록을 18경기로 늘렸다.
광주는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12승6무가 된 광주는 2017년 경남FC가 세운 K리그2 기록인 18경기 무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4일 서울 이랜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이 부문 신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패배없이 반환점을 돈 광주는 승점 42로 2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35·10승5무3패)에게 7점 앞선 단독 1위를 고수했다.
광주는 전반 44분 나온 여봉훈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켰다. 창단 첫 5연승이다. 안산은 승점 24(6승6무6패)로 6위에 머물렀다.



부산은 안방에서 서울 이랜드를 3-1로 격파했다. 전반 3분 만에 루티뉴에게 일격을 당했으나 김병준, 이정현, 이동준의 릴레이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다나카, 대체 선수로 올스타전 합류

다나카 마사히로(31·뉴욕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막차를 탔다.
MLB닷컴은 7일(한국시간) “다나카, 펠리페 바스케스(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브랜던 우드러프(밀워키 브루어스)가 대체 선수로 올스타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다나카는 왼어깨에 불편을 느낀 마커스 스트로먼(토론토 블루제이스)을

대신한다.
다나카는 올 시즌 5승5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 중이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인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다.
다나카가 올스타에 이름을 올리면서 양키스는 아롤디스 체프먼과 DJ 르메이유, 클레이버 토레스, 개리 산체스 등 총 5명의 올스타를 배출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진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